金 完 鎭著

鄕歌解讀法硏究(韓國文化硏究叢書 21)

서울大學校出版部, 1980, 285面

安 秉 禧
〈서울대 人文대학 교수〉

1

鄕歌는 우리의 현존하는 最古의 文學作品이다. 비록 借字로 표기되긴 하였으나, 統辭構造까지 알려주는 古代語資料다. 그러므로 그 올바른 解讀은 國文學과 國語學의 공통의 課題인 것이다. 1929년 小倉進平에 의한 전반적인 解讀이 있었으나, 最初의 解讀이란 意義가 고작 있을 뿐이었다. 解讀다운 解讀은 1942년 梁柱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 약간의 새로운 試圖가 있었지만, 梁柱東의 業績이 계속 學界에서 生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國文學史 등에서 鄕歌에 관한 記述은 모두 그 解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단적인 證據다. 그러나 國語學, 특히 國語史의 觀點에서 볼 때, 그 解讀에는 상당한 問題가 있음이 진작부터 지적되어 왔다. 梁柱東의 解讀이 당시로는 괄목할 業績이었지만, 解放 이후 쌓아진 國語學의 成果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解讀을 할 때는 이미 성숙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時點에서 三國遺事 및 均如傳 소재의 25 수와 睿宗의 悼二將歌를 합한 鄕歌 26 수에 대하여 철저한 原典批判을 가하고 엄격한 語學的 基準을 적용하여 解讀한 金完鎭교수의 '鄕歌解讀法硏究는 무엇보다도 時利를 잘 얻은 業績으로서 學界의 큰 收穫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本書의 槪要를 소개하고 아울러 약간의 意見을 덧붙임으로써 이 業績이 갖는 價値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本書는 本文 4章과 附錄文字로 되어 있다. 鄕歌의 解讀에 관한 語學的 基準, 달을 바꾸면 鄕歌의 表記基準에 관한 論議를 緖論에 이어 第一章에, 原典批判에 관한 것을 第二章에 실어 鄕歌 解讀의 方法論의 考究로 삼고 있다. 解讀의 實際는 第三·四章에 실었는데, 第三章이 三國遺事의 14수, 第四章이 普賢十願歌 11수와 悼二將歌를 다루었다. 附錄文字는 책머리에 自序, 諸家(小倉進平·梁柱東·池憲英·金善琪·徐在克·金俊榮)의 鄕歌解讀, 參考論著, 그리고 鄕歌의 語彙索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의 書評은 本文에 국한하고, 解讀方法論에 대한 것과 解讀의 實際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한다.

書 評

2

著者는 鄕歌解讀의 妥當性을 보증하기 위하여 語學的인 基準을 수립하고 있다. 그 基準은 解讀의 恣意性을 배제하고, 解讀을 論理的으로 검증하고 客觀的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鄕札의 表記原理에서 歸納된 것이다. 鄕札이 비록 불완전한 國語 表記體系라 하더라도, 하나의 表記體系로서 갖는 原則이 있기 때문에 그 原則의 抽出로부터 解讀의 基準을 잡는 것이다. 이러한 表記原理에 대하여 종래에도 단편적인 指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지적하고 설명한 일은 처음이다. 鄕歌解讀의 科學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基準은 一字一音의 原理, 訓主音從의 基準, 脈絡一致의 基準, 그리고 律調的 基準의 네 가지다. 이들은 각기 독립된 것이지만, 해독된 한 語形이 이들 基準에 모두 맞을 때 그것이 올바른 解讀이며, 그렇지 못할 때 그 解讀 자체가 반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차례로 그 基準을 보기로 한다.

一字一音의 原理는 같은 借字는 같은 音으로 읽혀야 한다는 原理다. 가령, '憂音, 夜音, 心音'의 音字는 언제나 '음'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이 原理는 音讀字뿐 아니라 訓讀字에도 적용된다. 가령, 위의 憂·夜·心字는 '시름·밤·ᄆᆞᅀᆞᆷ'의 앞부분과 같이 읽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著者는 이 原理를 기계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彈力性 있게 적용한다. 그리하여 漢字音의 制約에 말미암은 形態音素論的 表記를 인정하여 音字를 '음, ᄋᆞᆷ, ㅁ'으로, 訓字를 '흘, 을/ᄋᆞᆯ, 를/ᄅᆞᆯ'로도 읽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著者의, 一字一音의 原理에 대한 創意性이 나타나 있다. 이 原理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解讀의 結果만 가지고서 읽힌 音의 一貫性을 판별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鄕札은 表記의 慣習으로 繫辭 '이', 媒介母音 'ᄋᆞ/으' 등이 흔히 생략되기 때문에, 解讀에서 그것을 補充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尊敬法接尾辭의 표기인 賜字는 母音 '아'를 보충받아 '샤'로도 읽히는데, 이는 原理의 파탄이 아니라 表記에 생략된 母音의 補入으로 생긴 解讀의 표면일 뿐이다. 借字 賜는 언제나 '시'로 읽히는 것이다.

訓主音從의 基準은 이른바 義字末音添記를 가리킨다. 어떤 形態를 표기함에 있어서 概念에 해당하는 借字를 앞에 놓고 그 形態 끝부분의 音形에 해당하는 借字를 뒤에 놓는 方式을 가리킨다. 가령, 위에서 든 '憂音' 등과 '川理(나리), 千隱(즈믄), 慕理(그리-), 去隱(간)' 등이 그것으로서, 鄕札뿐 아니라 모든 借字表記의 基本模型이라고 할 것이다. 종래의 解讀에서 이 基準에 벗어난 表記例로 다루어지던 것까지도, 著者는 이 基準에 적용시킴으로써 정당한 새로운 解讀을 보여 주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이 基準의 適用으로써, 古代語의 音韻論과 形態論의 새로운 資料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脈絡一致의 基準은 文章의 脈絡 안에서 갖는 意味를, 律調的 基準은 詩歌로서의 일정한 律調를 解讀에서 배려하여야 함을 가리킨다. 이 두 基準은 다른 基準보다 서로 不可分의 關係에 있지만, 分節의 경우에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後者를 優位에 두어 分節을 행한다. 이와 같이 律調的 基準에 대한 著者의 配慮는, 崔行歸의 '三句六名'을 1·3·7 세 句에서의 6音節 維持란 理解에서 더욱 빛나고 있다. 著者는 자신의 解讀에서 실지로 그것을 보여 주거니와, 이러한 사실은 國文學史에서 정밀하게 검토되어 古代詩歌의 韻律의 解明에 이용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한 原典의 確保 없이 내려진 解釋과 主張이 결코 올바른 解釋과 主張일 수는 없다. 鄕歌의 文面에 대한 訂誤作業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所以다. 著者가 解讀의 語學的基準에 이어 原典批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서 指定文字說을 樹立하고, 鄕歌本文의 轉訛를 訂誤하며 脫字를 補充하고 있다. 指定文字說은 解讀의 語學的 基準이라 함이 더 적합하지만, 指定文字로 추정한 攴字가 支字와 종래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原典批判의 一節로 다루어진 것이다.

指定文字란 원래 古代 이집트文字에 나타나는 記號인데, 鄕札에서는 앞에 온 借字가 訓讀字임을 지정하는 攴字를 가리킨다. 예컨대, '高攴, 影攴' 등에서 攴字는 앞 借字의 訓讀을 지정하는 機能만을 가지고, 자체로는 訓讀도 音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音讀字인 支와의 區別이 생기며, 解讀에 새로운 단서가 얻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指定文字는 訓讀字 아래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音讀字로 오인될 경우에만 사용된 記號라고 한다. 요컨대, 指定文字說의 提起는 支·攴字의 差異에 대한 假說로서 앞으로 많은 論難을 일으키리라 믿는다.

本文轉訛의 訂誤와 脫字의 補充은 原典批判의 本領이 나타난 부분인데, 鄕歌의 轉寫와 版刻의 過程에서 저질러진 誤字와 脫字 내지 缺字의 校訂이다. 誤字의 校訂에서는 楷書뿐 아니라 草書의 類似에 말미암는 轉訛를 지적한 것은 전혀 새로운 試圖로 卓見이라 하겠다. 그러한 例로 든 '間→醫, 手→香' 등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轉訛의 訂正인 것이다. 脫字의 校訂은 句節의 分界와 관련하여 매우 세심하게 행하여져 있다.

이상으로 解讀方法論에 대한 第一·二章의 內容紹介를 마치기로 한다. 第三·四章보다 分量이 적지만,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것은 鄕歌解讀法硏究란 책이름대로 解讀方法論이 本書의 核心이고, 實際 解讀은 方法論의 應用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요약한다면, 이 解讀方法論은 正鵠을 얻은 것으로서 吏讀와 口訣資料 등 다른 借字資料의 解讀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指定文字說은 再考의 餘地가 있어 보인다. 첫째 末音添記로서의 音讀字를 사이에 두고도 나타나는

사실, 둘째 당연한 訓讀字 아래에 나타나면서 모호한 訓讀字에 쓰이지 않는 일도 있는 점, 세째 誤讀을 방지하기 위한 指定機能을 가지고 있는데도, 音讀字 支와 나타나는 環境과 字形이 비슷한 支字가 선택된 것 등이 좀더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支·支字의 差異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假說임에 異論이 없다고 생각된다.

3

解讀의 實際는 原文을 보인 뒤에, 原文의 모든 借字에 대한 著者의 理解를 한글로 보인 轉字, 轉字를 바탕으로 한 당시 言語의 復原을 보인 轉寫, 句別로 상세하게 轉字와 轉寫의 根據를 논란한 解讀의 論議, 그리고 現代語譯을 실음으로써 진행되어 있다. 轉字와 轉寫의 段階를 나눈 것은, 각 借字가 단독으로 갖는 用法과 借字의 結合이 표시하는 語形의 差異를 인식함으로써 채택된 方法이다. 종래 행해진 轉寫의 方法만으로는 借字體系의 정확한 認識이 불가능한 점에 상도한다면 획기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다. 解讀의 論議는 例證을 위한 文獻例의 열거를 지양하고, 다른 解讀者들의 解讀 論理의 比較와 評價를 위주로 행하여지고 있다. 거기에서는 종래의 解讀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批判도 나타나는데, 著者의, 學問에서의 適當主義를 배제하는 엄격한 學問精神을 엿보이게 하는 점이다.

이제 實例를 첫번째의 慕竹旨郎歌에서 보기로 한다. 먼저 그 現代語譯을 梁柱東의 그것과 대조하여 보인다.

> 간 봄 그리매 모든것사 시름하는데,/ 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내다./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만나뵙도록 (기회를) 지으리이다./ 郎이여, 그릴 마음의 녀올 길이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增訂古歌硏究 p. 878)
>
>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계시지 못하여 우을 이 시름./ 殿閣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눈의 돌음 없이 저를/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郎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형에서 잘 밤 있으리. (本書 p. 67)

이 對比만으로도 解讀된 結果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하여 준다. 구체적으로 第一句의 解讀論議만을 소개하여도 그 差異는 분명하여질 것이다. 原文은 '去隱春皆理米'인데, 처음 3字는 문제가 없다. 뒤 3字에 대하여 意見이 갈린다. 梁柱東이 모두 音讀하여 '그리매'(慕)로 해독하였으나, 本書는 訓主音從型으로 파악하여 皆字를 '모도'로 訓讀하여 '모도리매', 곧 '몯 오리매'(不能來)로 해독한 것이다.

本書에서 행해진 鄕歌의 解讀은 종래의 그것과 절반 이상이나 다르다. 위 第一句의 解讀은 오히려 差異가 덜한 편이다. 그러므로 第二句 이하의 解讀을 소개하는 일은 한정된 紙面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本書의 精讀을 권하면서,

解讀에 관한 紹介는 줄이고, 한두 問題點만을 덧붙이기로 한다.

첫째 訓讀字 중에는 지나칠 정도로 희귀한 訓이 이용된 借字가 있는 점이다. 가령, '阿多音'(Ⅰ.3)〔괄호 안의 數字는 本書의 解讀에 나타난 鄕歌와 그 句의 차례〕의 阿字를 邸字로 해석되는 'ᄆᆞᄃᆞᆷ'(中世語의 'ᄆᆞᄅᆞᆷ')으로 訓讀하는 例가 그것이다. 그 밖에도 '久(Ⅳ.10), 底(Ⅸ.1), 中(XXⅥ.4)' 등을 각각 '둪-(覆), 엇뎨(何), 몸(身)' 등으로 訓讀하였는데, 그러한 訓으로는 흔한 글자가 있음에도 왜 그 借字가 사용되었을까 하는 問題가 있다. 실지로 이들 底·中字의 訓에는 '何, 身' 등이 鄕歌에서 사용된 것이다.

둘째 轉寫의 結果가 國語史의 觀點에서 설명하기 힘든 사실을 보이는 점이다. 가령, 引用添辭 '고'(Ⅶ.9)가 있는데, 이는 近代語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形態다. 中世語에는 'ᄒᆞ고'가 나타나거나 그것 없이 바로 引用動詞가 나타난다. 그 밖에 形態音素論의 事實로서 强勢添辭 '곳(Ⅰ.3), 옷(Ⅰ.5, Ⅸ.5)'이 나타나는데, 活用語尾 '-고(다)'의 例인 '아히고(Ⅲ.3), 알고다(Ⅲ.4)'에 비추어서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吏讀資料에서 共同格助詞가 果字로만 표기되던 時期가 있었음도 참고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모든 解讀은 借字體系, 곧 語學的 基準에 비추어 보거나 國語史의 觀點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古代語의 音韻論, 統辭論, 그리고 語彙論에 새로운 面을 열어 놓고 있다. 한 마디로 本書에서 행해진 鄕歌의 解讀은 國語學은 물론이고, 國文學의 硏究에 그대로 이용되어야 할 業績인 것이다.

4

本書는 悼二將歌를 합한 鄕歌 26 수에 대하여 철저한 原典批判을 가하고 엄격한 語學的 基準에 따라 解讀을 행한 책이다. 특히 종래의 解讀에서 未詳으로 된, 遲賊歌의 缺字까지 復原하여 완전히 解讀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梁柱東의 解讀에 적어도 당분간은 가장 완벽한 代案을 제시한 硏究로서 國語學과 國文學 硏究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解讀의 過程에서 밝혀진 古代語의 音韻·統辭·語彙에 관한 새로운 認識은 國語史硏究의 큰 收穫이다. 한편 解讀의 方法論硏究와 그 實例로써 보여 준 方法은 最近의 借字體系에 관한 硏究에 模型을 보인 점에서 큰 效用을 갖는 著述이다. 요컨대 本書는 鄕歌硏究는 물론, 國語史硏究에 있어 基本書의 하나가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著者인 金完鎭 교수의 勞苦에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